

#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 지리교사들의 인식과 재정립 방향의 모색\*

이 영 민\*\*

## Basic Concepts in Geographic Education: The Estimation by Secondary Geography Teachers and the Quest for Reformation\*

Youngmin Lee\*\*

**요약** : 이 연구는 개념 및 개념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 보고, 기존의 지리교육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현장 교사들의 기본 개념 인식과 비교한 후, 향후의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지리교육의 개념은 지리적 현상의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괄적인 관념으로서 관련 지식들을 인지구조 속에 붙들어 매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장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본개념은 인간-자연관계, 입지, 지역, 지도화, 지역적 차이, 문화 등이며, 이는 전통지역지리학에서 강조되어 온 개념들이다. 반면에 지역적 결합, 공간 및 공간관계, 장소, 지구사회, 이동 등의 개념은 교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무차별적으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문적 성과와 교육적 성과는 다른 것이며, 이에 맞춰 지리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개념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기본개념, 주제적 개념, 연구기법, 개념학습, 지리적 문해력

**Abstract** . This study estimates the meanings and the values of concept and concept learning, compares the basic concepts valued on by the secondary geography teachers and the existing arguments on basic concepts in geography education, and then, shows som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formation of secondary geography textbook. The concepts of geography education help human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geographical phenomena and play a role of catching geographical knowledges in human recognition structure. The basic concepts recognized most importantly by geography teachers are man-nature relation, location, region, mapping, regional difference, and culture, which traditional regional geography has stressed on. The teachers however, do not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s of regional union, space, spatial relation, place, global society, and movement. In conjunction with such outcome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how the associating but the independent basic concepts could be developed.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ccomplishment are different, and so, it is needed to develop the concrete and elaborate key concept to increase the effect of teaching-learning activity

**Key Words** basic concept, substantive concept, techniques, concept learning, geographic literacy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우리 나라의 중등 지리교육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과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따라 지리교육은 그 독립교과의 위상을 상실해 가고 있다. 현행 6차 교육과정은 과도기적 체제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사회(하)-한국지리”라는 명칭으로 한국지리만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을 뿐 세계지리는 선택과목으로 전락해 버렸다.” 새롭게 시행될 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사회가 일반사회 및 계통지리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한 권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6차 교육과정에서 부제로서 그

~ 이 연구는 199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Dep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나마 존재하였던 “지리”라는 명칭이 소위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사라져 버릴 운명에 처하였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많은 지리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이 공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지리교육 내용과 체제의 구태의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구태의연성은 모든 지역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모험문인 지리학과 지리교과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지리 중심의 내용 구성에서 한국과 세계의 모든 지역을 전부 다루어야 한다는 의식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작의 일부 주체들에게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자리잡아왔지 않았나를 의심해 보게 된다. 모든 지역의 특징을 조금씩이나마 나열하여 전체를 구성해야 내용 완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리교육의 역할을 단지 지역정보의 전수로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최근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사회과의 지리영역을 암기할 것으로 가득 찬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낙인찍고 있다(허국래, 1999). 교사들 스스로조차도 학생들의 시각과 별반 차이가 없어 지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듯하다. “우리 나라 (지리)교과서는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은 없고 물고기만, 그것도 맛있는 물고기만 있는 것이다.”(현경희, 1999)라는 비판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만은 아닌 듯 싶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지역정보의 양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보의 질적 변화도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지역정보의 전수 매체로서의 지리교육의 내용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리학이 심도있는 이론적 연구를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축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리교육은 이러한 지리학의 목적과 아울러 사회과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지리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리학적 지식을 선택하여, 이를 교육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험문인 지리학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IGU(국제지리연합) 지리교육위원회의 지리교육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on Geographic Education: 서태열 역, 1995)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식은 물론이고 기능과 가치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리교육인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지리적 사고력, 창의적 탐구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같은 기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는 사회인바, 이에 맞추어 지리교육의 내용도 지역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전의 지리교육의 내용은 모험문인 지리학에서 다루어지는 결과로서의 지식들 중 쉬운 것들을 골라 배열하였을 뿐, 재구조화나 결과로 귀결되기까지의 과정 내지는 방법의 수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2. 연구 목적 및 방법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을 결과로서의 지리적 지식을 통하여 기술하는 종전의 지리교육 내용 구성 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결과로서의 지역정보나 지리지식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정보나 지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고 익힐 수 있는가를 터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리교육의 목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따라서 주제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성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고, 그 과정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써 개념 중심의 내용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념, 혹은 개념적 지식은 피교육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교수-학습활동의 궁극적 대상이며, 동시에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의 도구이기도 하다(Beyer, B. K.(한면희 외 역), 1988). 즉 개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은 목표로서의 개념학습(for concepts)과 수단으로서의 개념학습(by concepts)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학습의 도구로서의 역할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큰 기

여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유념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념학습의 교육학적 가치를 평가해 보고,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의 기본개념 인식과 비교해 본 후, 개념 중심의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장 지리담당 교사들의 개념 설정 및 개념학습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교수-학습활동의 한 축을 이루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지리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본개념 활용의 당사자인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 왔고, 따라서 전문학자들의 기본개념의 논의가 현장과는 유리된, 논리를 위한 논리의 전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된다.

기본개념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8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해당 학교에 지리담당 교사들이 2명씩 있으리라 가정하여 총 320명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중 중학교 교사 30명, 고등학교 교사 37명, 소속 무응답 교사 3명 등 총 70명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어 21.9%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70명에 불과한 응답 교사의 견해가 전체 지리교사의 견해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대략적인 방향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이를 토대로 더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지리교육 내용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다지기 위해 시도되었다. 즉, 본 연구는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개념들을 단순히 정리하여 기존의 기본개념에 대한 논의에 또 하나의 연구를 추가시키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교사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리교육 내용의 문제점과 개념학습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단계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장 교사들의 지리교육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

학습 중심의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개념에 연결되는 하위개념의 선정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좀더 실질적인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자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많은 학자, 교사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 3. 개념 및 개념학습의 가치와 효용성

인간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많은 현상들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성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이런 범주화된 지식이 바로 개념이며, 이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즉, 개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가지적, 비가지적 현상 및 존재들을 받아들여 인지 구조 속에 붙들어 매어 놓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현상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그것들의 공통성만을 추출, 분류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어 내는 일반화, 추상화 작업을 거쳐,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화 과정이 교수-학습활동의 현장에서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력, 추리력은 크게 발전하게 된다.

개념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cep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보면 개념과 개념학습이 갖는 교과교육학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랜덤하우스 영어사전에 나와있는 개념(concept)의 뜻은 ① 일반적 생각, 혹은 관념; ② 모든 성격(characteristics)과 독특성(particulars)을 정신적으로 묶어내어 형성된 어떤 구성물(a construct); ③ 직접적으로 상상하거나 직관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대상 등이다 이 중 두 번째의 뜻은 교과교육학에서의 개념의 의미와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이의 라틴어 어원인 'conceptum'은 'con-(완전히)과 'capere(잡다, 파악하다)'와 'turn(-tus의 과거분사 어미)'이 결합한 것으로서, '완전히 파악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정신적 작용의 과정과 그 추상적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인간들이 그들의 경험을 類目化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된 복합적인 추상적 의미체가 바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eyer(한면희 외 역), 1988).

이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주제(theme; subject)'이다. 특히 영어의 'theme'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우리말로 '개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concept'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혼동을 주기도 한다. 영어의 'theme'은 ① 토론, 명상, 작문, 작곡 등의 중심 내용이나 주요 제제; ② (예술작품에서와 같이)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통합적, 지배적 관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theme'이라는 단어는 하위의 요소들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통합성을 의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concept'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나, 통합적 관념의 구성 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신적 추상화 과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concept'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어 어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더 사려깊은 주의가 요망된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사전적인 개념의 의미를 교육에의 활용성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지리교육의 개념은 교육 활동의 목적 및 수단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의 활용성의 견지에서 지리교육의 개념이란 "지구의 자연체계 작동과정과 인간활동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괄적인 관념으로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을 의미있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일반화시켜 주는 일종의 도구"라고 정의된다(Hardwick and Holtgrieve, 1996). 간단히 말해서 개념이란 지리적 사실과 현상들을 잡아내는 일종의 그물이자 "뜻을 잡아내는 말뚝"(류재명, 1999)인 것이다. 개념은 지리적 사실과 현상을 인지구조 속에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다양한 지리적 사실과 현상들이 축적되어 역으로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리교육에서의 지리적 분석이란 바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작업이고, 또한 다른 개념 및 구체적 사실들과 연관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역할은 지리적 지식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며, 지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일관성있게 안내하고, 그에 따라 지리적 지식의 담지체인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교육현장에서 소위 탐구학습이라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지리교육과 관련해서 수많은 개념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은 그 범주화의 범위와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위계가 설정되어 구별된다. 하나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의 형태를 소유하는데, 그 하나는 속성과 실체적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하위의 개념들을 포섭하는 내적 관계의 구조이다(Beyer(한면희 외 역), 1988). 즉, 속성의 포괄성의 범위가 개념들의 위계를 결정하며, 어떤 한 개념에 포섭되는 다양한 하위개념들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 중 지리적 현상과 지식의 포섭 범주가 가장 넓은, 최상위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을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이라고 한다.<sup>3)</sup> 이 기본개념이 바로 교과의 가장 기본적 구조를 형성하는, 지리교육의 학문적 구조화를 위한 내용 구성의 기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불여나가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서태열, 1993). 결국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은 교과의 구조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 4. 기본 개념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의 방향

1960년대 미국에서는 브루너의 주도 하에 소위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정착하게 된다. 이는 교과교육의 내용이 그 교과의 모학문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법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7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의 구조화 및 탐구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중요한 한 원칙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sup>4)</sup>(차경수, 1996).

1960년대는 지리학 분야에서도 소위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이 자리를 잡아 논리적 절차에 따른 과학적 접근이 강조되었고, 이는 교육학 분야의 학

문중심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리교과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과학적 지식의 탐구에 큰 비중을 두고, 사실·개념·법칙 등의 체계적 조직체인 지리학의 지식의 구조를 지리교과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특히 개념을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리학적 지식 구조화의 또 다른 내용 요소인 지리적 사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한다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자세하게 나열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기가 어렵고, 지리적 원리나 법칙은 중등학생들의 지적 발달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난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기초가 될 지리학의 기본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1969년 이찬의 연구를 필두로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서태열(1993)과 남상준(1999)에 의해서 정리되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빈도 높게 선정되었던 기본개념은 지도화, 지리적 현상, 축척(scale), 분포, 지역, 지역적 차이, 지역적 결합, 인간-자연 관계, 공간 관계, 지구(환경), 지구사회(지구촌), 변화, 공간, 입지, 경관, 장소, 전파, 이동, 거리, 문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개념들은 각 연구자들의 직관이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두어 설정되어 그 추출 과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추출된 개념들간의 위계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 연구자들간에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들간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 분석기법을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점, 기본개념의 추출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서태열, 1993; 남상준, 1999).

위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연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의 논문에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으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는 몇몇 국내의 학자들의 기본 개념 분류 모델과 그 특징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지리학, 특히 인문지리학의 각 계통 분야간의 학문적 파

편성과 단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 흐름 속에서 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주제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지리교육에서의 기본개념을 만드는 작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에 그 의미는 자못 크다 하겠다.

먼저 구미에서의 최근 기본개념 설정의 경향을 살펴 보면, 분석기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명확히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지리학자인 Carville Earle 외 2인(1996)은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지리학 연구의 학문적 동향을 소개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편집하여 단행본을 출간하였는데, 그 편서의 서문에서 지리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6개의 중요한 개념들(key concepts)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16개의 중요한 개념들을 주제적 개념(substantive concepts)과 방법적 개념(methodological concepts)으로 구분하여, 주제적 개념에는 공간, 시간, 자연(nature), 문화, 경관, 생태학, 지역과 장소(region and place), 경계(boundaries), 혁신과 전파(innovation and diffusion) 등 9개가 속한다고 보았고, 방법적 개념에는 지도(maps), 모델과 체계(models and systems), 입지론과 합리적 경제인(location theory and rational economic man), 인간주의(humanism), 구조화(structuration), 페미니즘(femin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등 7개가 속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16개 개념 선정의 근거는 지리학의 학문적 발달과정을 통하여 오랜 기간동안 관심을 끌어왔다고 하는 시간적 지속성(endurance)과 동일 수준의 개념간에 연관관계가 밀접하고 하위수준의 개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연관개념의 풍부성(richness)이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방법적 개념들이 지도(화) 이외에도 다양하게 세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지리교육의 내용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즉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주제적 개념들은 그 바라보는 관점 내지는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에 지리교육의 기능적 영역과 가치·태도적 영

역을 구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지리학자 William Norton도 그가 쓴 개론서인 『Human Geography』(1996)에서 지리학 개념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위의 Carville Earle의 2인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리학 탐구의 과정과 목표를 지리적 사실들의 발생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여 지리적 지식을 쌓아가고, 이를 통해 지리적 문해력(geographic literacy)을 높여 가는 것이라고 보고, 지리적 지식 획득의 도구로서 개념(concepts)과 기법(techniques)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간(space), 입지(location), 장소(place), 지역(region), 거리(distance), 스케일(scale)<sup>9)</sup>, 전파(diffusion), 인지(perception), 발전(development) 등의 9개를 인문지리학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고, 연구·분석방법에 해당하는 지도학(cartography), 컴퓨터 지도학(computer-assisted cartography), 지리정보체계(GIS), 원격탐사(remote sensing), 정성적 방법(qualitative methods),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s) 등의 6개를 인문지리학의 기법(techniques)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류재명(1991)의 기본 개념 분류이다. 그는 지리교육의 목적이 결국 공간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탐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이 6개의 기본 개념은 자연토대(physical environment), 공간행태(spatial behaviour), 지역분화(혹은 공간분화, spatial division), 공간관계(혹은 지역관계, spatial relation), 지역계층(혹은 공간계층, spatial hierarchy), 공간구조(혹은 지역구조, spatial structure) 등이다. 이는 지리학의 연구가 어떤 순차적 질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념간의 연결성과 위계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공간에 대한 의미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인간에 의해 공간에 투여되는 의미나 상징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의 3가지 최근 논의들은 지리학 연구의 방법 내지는 기법을 주제적 개념과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념들간의 연관성 내

지는 위계성을 강조하며 개념 선정의 논리적 근거를 나름대로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기본 개념 분류 논의로부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실제적인 지리교육의 내용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을 붙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sup>10)</sup> 기본개념 설정의 최종 목표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기에, 위의 과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는 과연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이 그동안 위의 기본개념들을 얼마나 재구조화하여 내용에 반영해 왔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지리학 및 지리교육 전문학자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지리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칠판배를 뺀듯 전문학자들 간에만 각자의 견해가 교환되면서 선언적으로만 가감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설정된 기본개념의 현장 내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자체가 매우 부진하였고, 현장 교사들의 기본개념과 그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작업도 필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전문연구자, 교사, 학생 등 지리교과 교육 발전의 3대 주체 중 교사의 견해와 역할이 다른 주체들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에 있어 이들의 참여가 그 동안 매우 제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기본개념 중심의 교육내용 구상에 있어서 현장 지리교사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그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관점과 현행 교과서의 개념학습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장 교사들의 관점과 견해를 중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기본 개념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당사자들이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문연구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 나름대로의 기본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학생들의 지적 발달 단계를 몸소 경험하고 있으므로 어떤 개념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들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재편과정에 반영된다면, 앞서서 제기된 현재까지의 지리교육 내용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5. 현장 교사들의 기본 개념 인식

현장 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필자는 일단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러 기본 개념들 중 빈도가 높은 20개를 설문지에 제시하고 교사들이 이 중 10개를 골라 표시하게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에 의해 가장 빈도 높게 선정된 개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인간-자연관계; ② 입지; ③ 지역; ④ 지도화; ⑤ 지역적 차이; ⑥ 문화; ⑦ 지리적 현상; ⑧ 지구(환경); ⑨ 분포; ⑩ 공간관계 등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⑪ 경관; ⑫ 공간; ⑬ 변화; ⑭ 축척; ⑮ 지구사회; ⑯ 지역적 결합; ⑰ 전파; ⑱ 장소; ⑲ 이동; ⑳ 거리 등이 순서대로 뒤를 잇고 있다(그림 1).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전통지역지리학적 연구개념과 방법이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적 현상들의 입지와 분포 및 이의 지도화, 그리고 자연환경, 인간-환경관계, 및 인간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성) 및 지역적 차이의 강조는 전통지역지리학에서 추구해온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교사들의 응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리교과서의 내용이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듯한데, 그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즉, 현행 지리교과서가 전통지역지리의 기술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다 보니 거기에 걸맞은 개념들을 머리 속에 각인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더구나 설문 응답 교사의 약 80%가 30대 이상이고, 이들 현장 교사들은 과거 대학시절, 현행 교과서를 만든 저자들로부터 지리학을 배웠을 터이니, 이들 중 지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과 단절되었을 대부분의 교사들은 신지역지리학이나 기타 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기된 주요 개념들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간이나 장소, 변화, 지역적 결합 같은 개념들이 낮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지리교육학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와 공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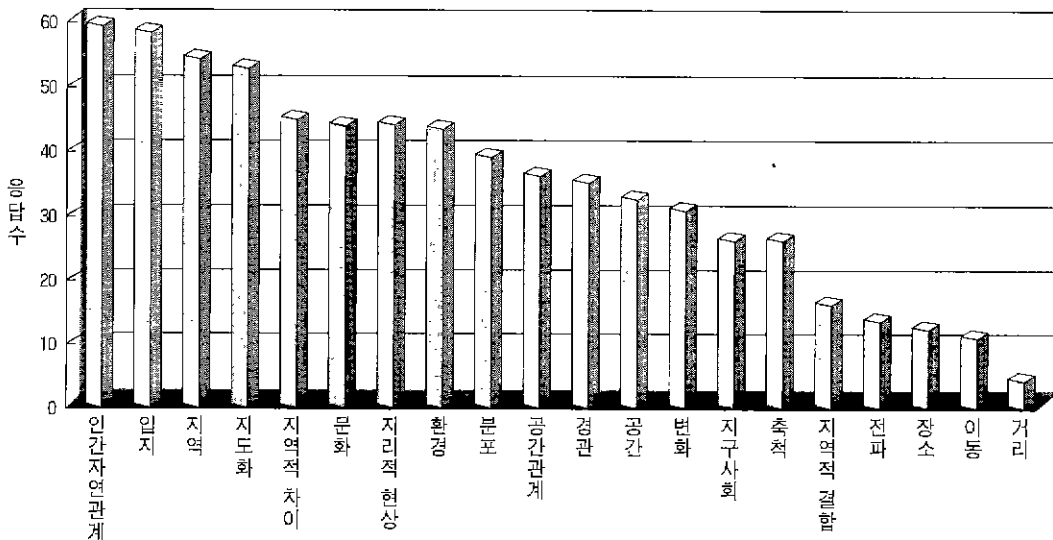


그림 1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기본개념

개발하여 1984년에 발표한 지리교육의 5개 주요 주제(theme) - 입지, 장소, 장소의 내적 관계, 이동, 지역-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내의 지리교육의 부활과 맞물리어 확실한 체계로 자리 잡은 위의 5개 주요주제는 탐구의 논리적 절차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지리교육의 목표는 마지막 주제인 지역의 이해에 있다고 본다. 이는 지역지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역의 이해를 위한 과정 단계에 장소, 장소의 내적 관계, 이동 같은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 현실

과의 차이점이며,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단지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그러한 주제 내지는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의지와 의미가 투영된 장소(성)를 강조하는 것은 좀더 사람냄새가 나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장교사들이 설문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 개념이 가장 많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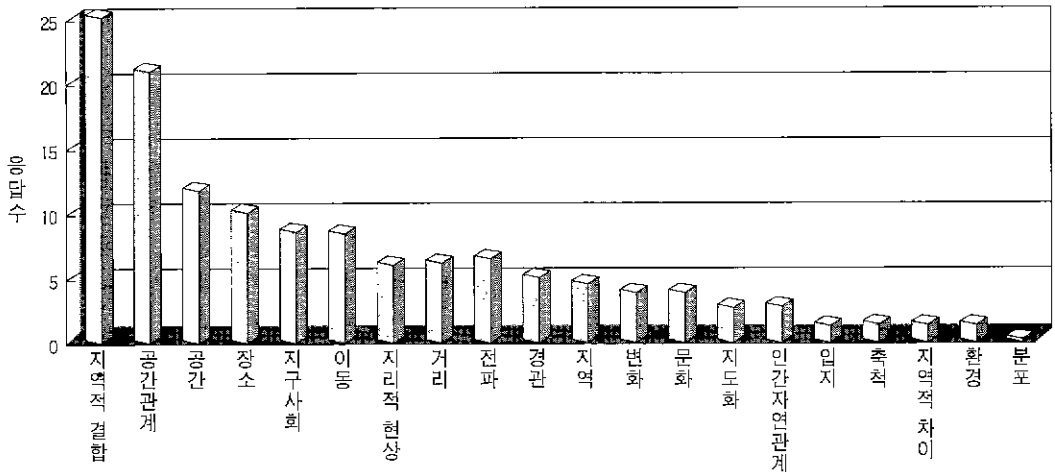


그림 2. 교사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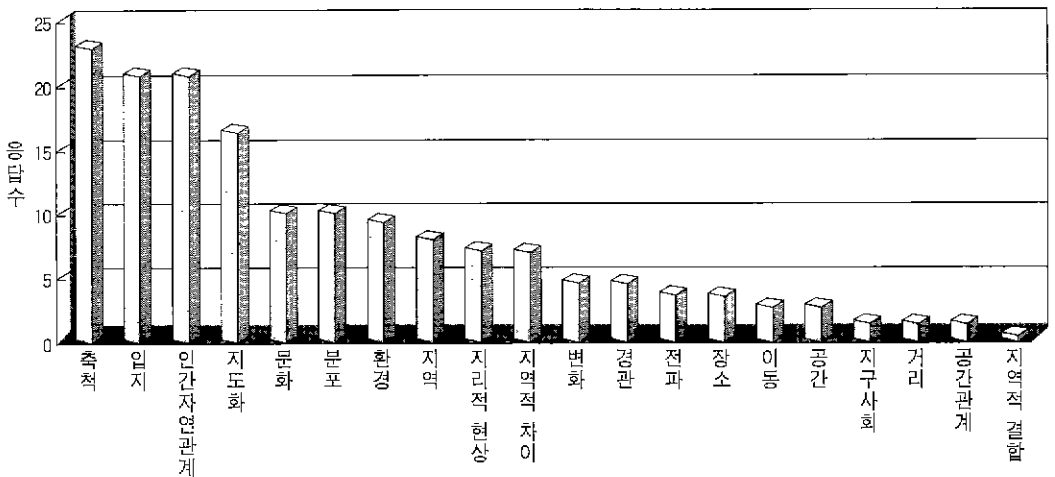


그림 3. 교사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개념



되고 있고, 지구(환경) 개념도 높은 순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지구환경의 심각성의 이해에 지리교육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자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환경교과가 신설되어 많은 자연지리 관련 내용이 중복되고 있긴 하지만, 현장교사들은 여전히 지리교육의 범주 속에서의 환경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지리교육의 정체성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원활한 결합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제시된 20개의 기본개념들 중에서 교사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개념들과 그 의미를 소상히 알고 있는 개념들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적 결합, 공간관계, 공간, 장소, 지구사회, 이동 등의 개념이 가장 의미 파악이 난해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그림 3). 이 개념들은 위의 그림 1의 설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던 개념들로서, 전통지역지리학 이후 패러다임 전이의 중심에 놓여있던 논리실증주의 지리학,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다. 결국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는 개념들은 중요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교사들이 모학문인 지리학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고, 또한 현행 지리교과서의 내용에 이미 매우 익숙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

제와는 별개인 것이다.

교사들이 위의 20개의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개념을 묻는 질문에는, 공간관계, 입지, 공간, 지도화 등의 개념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주목을 끄는 것은 입지 개념이다. 사실 이 개념은 지역지리의 탐구 과정에서 가장 앞서서 진행되어야 하는 쉬운 개념이라고 여겨지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입지의 개념은 계통지리학, 특히 경제지리학에서는 산업입지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교사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실문에 답한 것 같다. 주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 개념을 많이 선정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과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입지의 개념은 그 의미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하위개념의 선정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입지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개념의 하위개념들은 이처럼 학생들의 학력 단계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과 지식으로는 가장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개념, 즉 그 개념의 내용과 지식이 가장 빈약하게 담겨져 있어 개념학습을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묻는 질문에는 공간관계, 공간, 인간-자연관계, 지도화, 입지, 환경, 경관 등의 개념이 빈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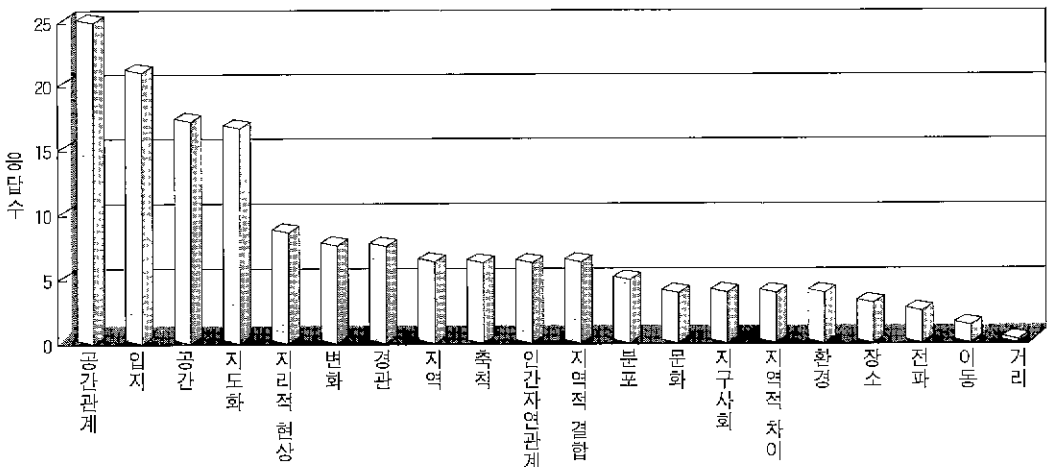


그림 4.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받아들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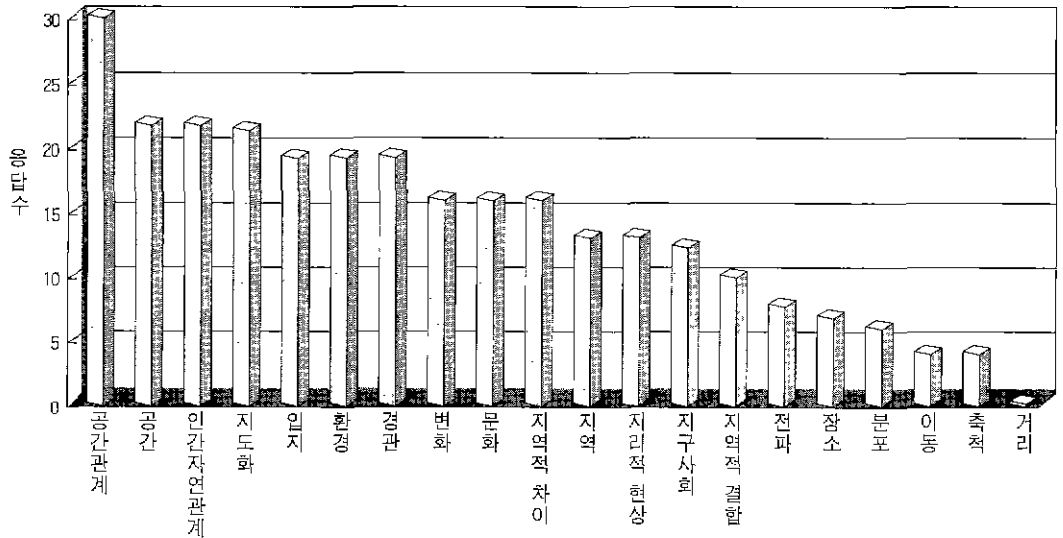


그림 5. 현행 교과서에서 개념학습이 어려운 개념

교과서의 개념학습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역시 과학적 사고를 요하는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의 공간관계 및 공간 개념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아마도 공간 관련 개념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인 듯 싶다. 이는 그림 4에서 공간 관련 개념들이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한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 관련 개념들 자체가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개념들이며, 동시에 현행 교과서의 내용 구성도 그 개념학습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연지리 관련 개념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교사들은 현행 교과서의 자연지리 관련 내용이 개념학습을 성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생소한 용어가 빈번한 자연지리 부분이라는 지적은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모두 제기되어 왔고, 이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를 현행 교과서가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연지리 부분이 인문지리 부분과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등 지역지리의 내용 구성에 있어 지형,

기후 등 자연지리의 계통분야별 지식들이 독립된 장에서 나열되고, 이어지는 다른 장에서는 인문지리 관련 내용들이 배타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지역구성 요소들의 활발한 내적 관계가 적절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지리교육 전문학자들 사이에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물론 모학문인 지리학의 이분법적 성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 특히 지역지리교육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 지역(성)을 이해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본개념과 이에 부속된 하위개념들간의 연결성은 물론이고, 기본 개념들간의 연관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여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사회와 통합이 대세를 잡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나라 지리교육이 점점 위축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처 방안 중의 하나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다각도로 진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그 동안의 중등 지리교과서

가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진부한 모습으로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 구성 및 진술 방식이 필요한데, 필자는 그 대안 중의 하나가 개념중심의 재구조화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학습의 교육학적 가치를 평가해 보고, 전문학자들에 의한 기존의 기본 개념 논의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하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개념분류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본개념 정립에 대한 위의 논의들은 지리학과 지리교육학의 전문학자들에 의해, 현장교사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이론적 수준에서만 시도되었던 것으로서, 현장에서의 적실성 여부는 미지수로 남겨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장교사들은 교수-학습활동의 대상이 되는 피교육자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의 학습 능력 및 수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본개념은 전문학자들에 의한 이론적 논의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현장교사들의 지리교육 기본개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기본개념을 구별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은 깊이있는 연구를 통한 이론의 정립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념들간의 관계를 통한 이론화 및 검증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지리교육은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현실세계에서의 문제해결력의 고양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모학문의 전문적인 지식, 개념, 원리가 그대로 지리교육의 내용구성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개념중심 내용 구성의 근거가 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모학문의 지식의 구조와 체계가 교과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는 전체구조화의 틀, 즉 지식, 개념, 원리에 도달하는 논리적 과정이 상호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똑같은 지식과 개념,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

는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지역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등지리교육의 내용에는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개념들이 설정되어야 하고, 특히 개념과 개념들간의 관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기본개념은 교과와 가장 기본적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상위의 몇 안 되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 내지는 하위개념의 포섭범위가 매우 넓고, 추상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몇 안 되는 최상위의 기본 개념들은 지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진술해 나갈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내용의 재구조화나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활동에는 좀더 구체성이 높은 개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따라서 각 기본개념들의 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하위개념들을 정립시켜 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논의들이 가장 최상위의 기본개념 정립에만 몰두하였을 뿐 구체성이 높은 하위개념의 설정에는 거의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지리 설명에 필요한 계통지리의 각 분야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적 하위개념 요소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리교육학계에서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본다.

## 註

- 1) 현장 지리담당 교사들은 최근 자신들의 호칭 변화를 씁쓸하게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사용되던 지리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사회선생님, 혹은 공사(공통사회)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학생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닐지는 모르나, 지리(학)의 대중적 인식이 축소, 왜곡될 수 있음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예라고 필자는 보고 싶다.
- 2) 7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과 지리영역의 개편 과정과 결과, 및 그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류제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 5(2), 1-28; 노희방,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 개

- 발보고: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 지리·환경교육, 5(2), 143-150.을 참조할 것.
- 3) 기본 개념과 관련된 용어로는 주요개념, 핵심개념 등이 있으나, 이들 각 용어가 엄밀한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전체로 뚜렷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영어에도 basic concept, major concept, key concept, core concept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어 용어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영어 어휘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관련 연구를 통하여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내려진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4)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공통)사회교과의 성격 논의에서,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세 영역의 개념과 원리를 내용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1997, p. 28).
  - 5) 이는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규모(scale)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공간적 의미만을 갖는 '축척'이라는 용어로 번역했을 때 그 포괄적인 의미가 축소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6) 지리의 기본 개념은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 지리교육의 내용에 반영된다고 보고,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지리용어의 역할과 난이도 수준을 분석한 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김현주, 1997, "학생과 교사의 지리용어인식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한국지리 농업단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37, 13-32.를 참조할 것. 이 연구는 편의상 지리용어를 기본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환원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듯하여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어쨌든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현행 우리 나라 지리교과서가 용어들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제시하거나 주의를 요하도록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7) 이는 학습의 도구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없

다. 하지만 지리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의 대상, 혹은 목표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말로 기본 개념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 文 獻

교육부, 1997, 사회과 교육 과정.

김연옥, 1990,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교학연구사.

김종석 외(편역), 1989,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김현주, 1997, "학생과 교사의 지리용어인식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한국지리 농업단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37, 13-32.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노희방,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 개발보고: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 지리·환경교육, 5(2), 143-150.

류재명, 1991,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리교육에 대한 철학적 사색의 서장, 한울.

———. 1999, 지리교육철학강의, 한울.

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 5(2), 1-28.

서태열, 1993, 지리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역), 1995, "지리교육 국제현장," 대한지리학회지, 30(3), 324-327(IGU Geographic Education Committee, 1992, International Charter on Geographic Education).

이찬, 1969,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기본개념," 새교육, 4월호, 130-138.

이희연(역), 1980, 지리교육학개론, 교학연구사.

임덕순, 1979, "지리교수용 제기본개념의 결정: 지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논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9, 306-314.

차경수, 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학문사.

한면희 외(역), 1988, 사회과 탐구논리, 교육과학사.

허국래, 1999, 지리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연구:

-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의 재구성.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현경희. 1999, “우리나라 중등 지리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안,” 탐라지리교육연구. 2, 42-52.
- Agnew, J., et. al., 1996, *Human Geography: An Essential Anthology*, Blackwell.
- Arends, R. I., 1994(3rd ed.), *Learning to Teach*, McGraw-Hill.
- Bacon, R. S., 1979, Building a curriculum in introductory human geography through core concepts, *Journal of Geography*, 78, 152-56.
- Bacon, R. S. and Green, J. E., 1981, Core concepts in introductory physic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80, 104-8.
- Earle, C., et. al., 1996, Introduction: Back to basics: The virtues of key concepts in human geography, *Concepts in Human Geography*, Rowman & Littlefield, xi-xxv.
- 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 1994, *Geography for Lif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 Hardwick, S. W., Holtgrive, D. G., 1996, *Geography for Educators: Standards, Themes, and Concepts*, Prentice Hall.
- Joint Committee on Geographic Education of NCGE and AAG, 1984,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 Naish, M., 1997, The scope of school geography: A medium for geography, in Tilbury, D., Williams, M. ed.,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Routledge, 49-58.
- Natoli, S. J., 1994,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 Themes i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93(1), 2-6.
- Norton, W., 1996, *Human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J. L., 1976, A new look at the four traditions of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75, 520-30.